

## 04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관련 언론 보도 경향 분석 : 건강 행동 유도 변인을 중심으로

### •서민혜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 •박진성\*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관련 언론 보도가 공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 행동 이론과 건강 심리학 이론에서 개인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취약성 정보, 즉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기사의 비율은 58.7%였고, 감염의 신체적·정신적 결과, 즉 심각성 정보를 내포한 기사의 비율은 이보다 높은 86.2%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성 정보가 제시될 때 심각성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둘째, HPV 예방 백신 접종의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관한 정보, 즉 반응 효능감 정보가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67.1%였지만, 백신 접종의 용이성, 즉 자아 효능감 정보가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이에 비해 매우 낮았다(5.4%). HPV의 신체적 심각성을 언급하는 기사의 경우 반응 효능감 정보 역시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셋째, HPV 관련 인식과 행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격차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기사는 전체의 20.4%로 확인됐으며, 성차 해소 정보는 자아 효능감 정보를 제외한 모든 메시지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HPV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방식이 공중의 예방 의도 및 행동에 미칠 영향력을 논의할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함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공중의 HPV 관련 인식 및 행동 제고를 위한 메시지 개발에 있어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 고 일 : 2017년 10월 31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0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24일

주제어 : 건강 행동, 내용 분석,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질병 인식, EPPM, HBM

\*교신저자(jinspark@inu.ac.kr)

##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이하 HPV)는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남성에게는 음경암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다. HPV는 성관계나 피부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CDC, 2011),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Lee 등(2012)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8세에서 79세 사이의 국내 여성 6만 7백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4.2%가 HPV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18세에서 29세 사이의 감염률은 44.9%로 가장 높게 관찰됐다. 이밖에 한국 성인 여성의 10~20%와 성인 남성의 10%에서(국가암정보센터, 2017), 성교가 잦은 남대생의 10.6%와 여대생의 38.8%에서 HPV가 검출됐다는 결과도 있다(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2016). 이처럼 HPV 감염률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에서 감염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국가암정보센터(2017)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HPV의 종류는 대략 100여 종이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위험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소실되는 반면, 고위험군은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등을, 남성에게는 음경암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CDC, 2011). 특히,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HPV 고위험군 16형, 18형이 지목되고(WHO, 2010), 전 세계 여성 암 사망률 2위 질병으로 자궁경부암이 꼽히는 만큼(Agosti & Goldie, 2007; Parkin, Bary, Ferlay & Pisani, 2002)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HPV 예방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관계를 갖기 전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HPV에 대한 중화 항체가 체내에 생성돼 감염이 되더라도 HPV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전에 무력화된다(이영은, 박정숙, 최은정, 2013).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HPV 예방 백신 접종 시 자궁경부암 발병을 80% 수준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한산부인과외사회, 2013). 남성의 경우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구강 관련 암이나 음경암, 항문암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성의 HPV 감염률까지 낮출 수 있다(CDC, 2016). 따라서 감염 경로 및 예방 백신 정보 등 HPV 관련 예방법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 건강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이란 명칭으로 HPV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HPV 예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2007년으로, 9세~26세 사이의 여성과 9세~15세 사이의 남성에게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김병기 외, 2007). 특히, 2016년 HPV 예방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2003~2005년생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임상호, 2017). 하지만 정보 및 홍보 부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백신 및 의료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2016년 한 해 HPV 무료 예방 백신 접종률은 33.1%에 그쳤다(이준엽, 2017). 국내 여대생의 경우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은 5.5%에서 34.2% 사이로 관찰되며(이은주, 박정숙, 2011; 이승연, 한미아, 박종, 류소연, 2015; 신미아, 2016), 이는 미국 여대생 40.5%(Daley et al., 2010), 호주 여학생 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접종률이다(Brotherton et

al., 2013). 국내 여고생의 HPV 예방 백신 접종률 또한 2.2%에 불과했으며(이영은 외, 2013), 남대생의 백신접종률은 0%로 관찰됐다(이승연 외, 2015). 이처럼 한국인의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은 동일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남성의 접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국내 여성의 경우 HPV 예방 백신 접종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 HPV에 대한 정보 부족,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됐다(이은주 외, 2011; 김혜원, 2012; 이영은 외, 2013; 이승연 외, 2015; 신미아, 2016).

남성의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이 전무한 이유로는 감염이 되도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점(CDC, 2011),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는 백신 접종에 대한 별다른 권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만의 건강 문제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춰 HPV 감염 예방 백신을 홍보, 판매한다는 점도 남성의 접종률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HPV 감염이 남성 집단에서도 음경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남성이 HPV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성에게 HPV를 전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Pitts et al., 2009) 등을 고려할 때, HPV 감염은 남성 집단에서도 중요한 건강 의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2014)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HPV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해오고 있는데, 이는 여성만 HPV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때보다 남성이 함께 접종했을 경우 HPV 감염률과 관련 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박수정, 박효정, 2012). 호주나 영국, 벨기에 등도 HPV 예방 백신을 학교 백신 프로그램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체 접종률이 70%를 웃도는 실정이다(김병기, 2015). 따라서 국내에서도 성별과 무관하게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HPV 예방 백신 접종 등 예방 행동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정책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개인적 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전통에서 볼 때 특히 주목할 것은 대중 매체를 통해 얻는 건강 정보가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다(Morton & Duck, 2001; Anderson et al., 2009). HPV라는 건강 문제의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HPV에 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접종 의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조수영, 2011; 김혜원, 2012). 즉, 건강 행동 수행의 주요 장애물이 문제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임을 감안할 때(Institute of Health, 2004), 한국인의 HPV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신현경, 박효정, 2015; 이은주 외, 2011; 박수정 외, 2012)을 향상시킴으로써 접종률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철과 진창현(2011)은 전통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등) 보다 인터넷 뉴미디어(인터넷 등)를 통한 정보획득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행암, 자궁경부암 검진 의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관찰해냈다. 즉, 인터넷은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채널로 인식되며(정의철, 진창현, 2011; Johnsen,

Rosenvinge & Gammon, 2002; Williams, 2003; Maria, 2006, 재인용), 따라서 HPV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가 HPV 관련 인식 제고 및 예방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어떤 빈도로, 얼마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기존 건강 행동 연구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HPV 관련 언론 보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언론 보도가 수용자들의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 및 행동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건강 신념 모델(HBM)과 확장된 평행 과정 모델(EPPM)등의 이론적 틀로부터 HPV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취약성(susceptibility)', '심각성(severity)',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반응 효능감(response efficacy)' 등 4개의 변인을 추출했다. 또한 HPV 관련 인식 및 예방 행동이 성별에 따라 극심한 격차를 보여 왔으며, 미디어가 문제를 묘사하는 방식이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 인식 및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목됨을 (Menon, Block & Ramanathan, 2003; Park & Grow, 2010)을 고려하여 '성차 해소 정보 제공 여부'를 추가적인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건강 행동에 관한 기존 이론으로부터 특정 연구 맥락에 적절한 소비자 행동 결정 요인들을 추출한 후 이에 기반 하여 내용 분석의 변인과

유목들을 도출하는 방식은 건강 이슈 관련 내용 분석에서 주요 연구 접근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Byrne, Niederdeppe, Avery, Cantor(2013)는 건강 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등으로부터 추출한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취약성' 등의 개념들에 초점을 맞추어 제약 광고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의 대안적 방법들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묘사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Lapinski(2006) 역시 확장된 평행 과정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등의 이론적 틀로부터 추출한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등의 개념들에 초점을 맞추어, 섭식 장애를 장려하기 위한 웹 사이트들이 어떠한 메시지 요소들을 통해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고 전파하는지 분석했다. HPV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요인들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을 고려하여,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연구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개인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흔히 접하는 HPV 정보를 건강 행동에 관한 이론에 입각해 '건강 인식과 행동 제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공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통찰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Maria, 2006). 이는 향후 건강 이슈를 담당하는 언론 산업 종사자 및 건강 문제에 대한 공중의 인식 및 행동 제고에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민영 및 공공 의료 종사자, 질병 관련 공익 캠페인 메시지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광고 홍보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헬스 커뮤니케이터들에게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건강 행동 및 심리학 이론과 내용 분석의 결합을 통해 건강 문제 관련 미디어 정보를 분석하는 시도는 향후 공중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효과 분석의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예상된다.

## 2. 이론적 논의

### 1) 위험 인식과 HPV 관련 언론 보도

인지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 이하 취약성)이란 특정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위험 인지 정도를 의미한다(Hochbaum, 1958). 취약성은 엑스선 검사 의향 및 여부를 묻는 Hochbaum(1958)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출된 개념으로, 스스로 결핵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엑스선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의 생각을 가진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Hochbaum, 1958; Karen, Barbara & Frances, 1991, p.49). 즉 이 맥락에서는 ‘결핵에 걸릴 확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곧 취약성이라 할 수 있으며, 취약성이 예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는 라임 질병(Brewer et al., 2004), 에이즈(Irwin et al., 1996) 등 다양한 질병 관련 행동 영역에서 관찰된다.

한편, 같은 질병일지라도 개인 마다 취약성(개연성)의 정도는 상이한데 이는 환경적,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조수영,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취약성이 건강 행동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Janz와 Becker(1984)가 취합한 37편의 논문 중 30편(약 87%)의 논문에서는 취약성과 행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타 분석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취약성과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의 평균적인 크기를  $r=.15$ 에서  $r=.37$  사이로 보고하고 있다(Carpenter, 2010; Harrison, Mullen, & Green, 1992; Zimmerman & Vernberg, 1994).

HPV를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취약성이 높을수록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조수영, 2011). 하지만 정작 HPV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는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Kahn, Rosenthal, Hamann & Bernstein, 2003), 이 같은 결과는 HPV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영은 외, 2013; 박수정 외, 2012). 따라서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의 취약성 인지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및 지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각성(severity)이란 특정 질병에 감염되거나 이를 방지했을 때 나타나게 될 일련의 결과를 개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Hochbaum, 1958). Hochbaum(1958)은 심각성을 신체적 심각성과 심리적 심각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먼저 신체적 심각성이란 임상적·의학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며, 심리적 심각성은 질병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인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Hochbaum, 1958;

Karen et al., 1991, p.50). 예를 들어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 사망 등은 신체적 심각성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낙인이나 차별,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은 심리적 심각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Rosenstock 등(1994)은 AIDS 관련 연구에서 심각성을 평가할 때는 AIDS에 감염됨으로써 겪게 될 신체적 심각성과 감염 여부에 따른 사회적 평가인 심리적 심각성까지 반드시 포함해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94). 일반적으로 심각성은 취약성과 함께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여겨지며, 심각성이 높을수록 건강 행동을 이행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Harrison et al., 1992).

취약성과 마찬가지로 심각성 역시 일반적으로 예방이나 치료 등의 건강 행동과 일반적으로 양적인 상관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감 예방 접종(Chapman & Coups, 2006), 우울증에 대한 정보 습득(Park, Ju & Kim, 2014) 등 다양한 영역의 건강행동에서 발견된다. 심각성과 건강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r=.05$ 에서  $r=.18$  사이로 나타나며, 이는 취약성보다 건강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Brewer et al., 2007; Carpenter, 2010; Zimmerman et al., 1994). HPV 관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됐는데, 심각성과 예방 백신 접종 의도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영, 2011). 즉, 심각성이 높을수록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건강 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 전통에서는

취약성과 개별성이라는 두 요인이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건강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가령 건강 신념 모델(Rosenstock, 1960)과 병행 과정 확장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 Witte, 1992)에서는 취약성과 심각성을 '위험 인식(perceived threat)'이란 포괄적 개념의 요소들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확률에 대한 주관적 믿음(취약성)과 위협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 믿음(심각성)이 함께 높을 때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 예방 행위 의도가 증가하며, 둘 중 어느 한 요소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 예방 행위 의도가 저하될 수 있다(Witte, 1992, 1994). 비슷한 맥락에서 Rogers(1975)는 심각성과 취약성이 동시에 강조될 경우 행동 변화를 위한 예방 행위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험 인식은 개인적 체험, 성격적 기질, 대인 관계를 통한 간접 체험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미디어 보도에 대한 노출이 위험 인식의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최명일, 김경환, 주지혁, 2009; Hanson & Benedict, 2002). 예를 들어 최명일 등(2009)은 특정한 공중 보건 관련 보도가 많을수록 해당 정보를 접하게 되는 수용자가 증가하며, 이는 위험 인식의 증가와 건강 행동 의도의 강화로 이어짐을 밝혀냈다(최명일 외, 2009). 이는 HBM(Rosenstock, 1966)에서 제안 하듯이 미디어 보도가 특정 건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건강 문제에 대한 '행위단서(cues to action)'의 제공자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HPV에 관련한 위

험성의 두 차원, 즉 위험성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를 미디어가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의제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무리 질병으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이라 인식할지라도, 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을 낮게 인지한다면 건강 행동 이행의 결정과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Maddux & Rogers, 1983). 즉, 심각성은 건강 행동 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결정을 실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취약성이 전제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약성과 심각성에 관한 정보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빈도로 제공되는지 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두 범주의 정보가 HPV에 관한 미디어 보도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바탕으로 HPV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취약성, 심각성의 빈도와 더불어 위험 인식을 구성하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HPV 관련 언론 보도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취약성 관련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2: HPV 관련 언론 보도는 바이러스 감염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2a: HPV 감염의 신체적 심각성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b: HPV 감염의 심리적 심각성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HPV 감염에 대한 취약성 관련 정보 제공과 심각성 관련 정보 제공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2) 효능감과 HPV 관련 언론보도

효능감은 특정 건강 행위와 관련된 자기 확신으로 정의되며, 건강 행위 실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된다(Dillard, 1994). 효능감은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Witte, 1994). 자아 효능감이란 질병 대응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개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행동 변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의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Bandura, 1977, 1998). 건강 행동에 대한 자아 효능감의 영향력은 콘돔 사용(Crowell & Emmers Sommer, 2000) 및 식생활 개선 (Erinosho et. al., 2015)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된다. HPV 관련 행동의 맥락에서, 자아 효능감은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영, 2011). 또한 HPV 예방 백신 접종자는 미 접종자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아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신미아, 2016).

한편, 반응 효능감이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하는 행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Rogers, 1975). 반응 효능감 역시 인지적 차원에서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러한 영향력은 다양한 건강 행동 영역들에서 관찰된다. Carpenter(2010)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행위 결과에 대한 기대, 즉 반응 효능감은 취약성, 심각성 인식보다 더 강하게 건강 행동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 반응 효능감과 행위 의도 사이의 연관성은 콘돔 사용과

안전한 성관계(Glanz, Rimer & Viswanath, 2008), 흡연의 건강 경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Thrasher et al., 2016)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고되었다.

Bandura(1986)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할 경우 행동 변화의 전 단계에 걸쳐 자아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제안했다. 이는 위험 인식과 마찬가지로 효능감 역시 미디어를 통한 건강 정보의 습득 등 개인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변화해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HPV에 관한 정보를 매체가 대중에게 전할할 때 자아와 반응 효능감과 연관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군의 이론적 관점들은 위험 인식과 효능감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건강 행동을 결정한다고 제안한다. Rogers(1975)는 보호 동기 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을 제시하며 공포를 소구하는 메시지에서 취약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수용자로 하여금 예방 행동이 효과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든다면 실제 예방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Witte(1992; 1994)가 제시한 EPPM은 위험인식과 효능감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안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위험 인식(심각성,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집단을 고위험·고효능감, 고위험·저효능감, 저위험·고효능감, 저위험·저효능감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고위험·고효능감에 속한 집단은 적극적인 대안 행동을 통해 위험 통제 반응을 보이지만, 고위험·저효능감에 속한 집단은 회피를 수반하는 공포 통제 반응을 보인다. 즉, 위험 인식

이 높을지라도 효능감이 낮을 경우에는 건강 행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meron 등(1999)은 건강관련 캠페인들은 효능감 관련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험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는 메시지 회피 등의 부적절한 대응 행동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험 정보가 효능감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건강 관련 메시지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미디어 정보 노출이 효능감의 결정 요인임을 고려, 본 연구에서는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 관련 정보가 어떠한 빈도로 제공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험 인식과 효능감이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건강행동을 유도함을 고려,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의 제공 빈도 사이의 연관성을 아래의 연구문제들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HPV 관련 언론 보도는 자아 효능감과 관련된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5: HPV 관련 언론 보도는 반응 효능감과 관련된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6: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위험 정보(취약성, 심각성)의 제공 여부와 효능감(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관련 정보의 제공 여부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 3) 성차에 따른 HPV 관련 언론 보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관찰되는 HPV 발병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3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관찰된다(국가암정보센터, 2017;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2016). 하지만 성관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HPV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함께 동참해야 효과적이다. 또한 심각성의 측면에서도 HPV는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남성에게는 음경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HPV의 위험성 인식과 효능감의 제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식수준 향상은 남녀 집단 모두에게 중요한 건강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HPV 관련 지식수준이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 성인 남성의 경우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수준은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박수정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자궁경부암 지식은 8점 만점에 4.88점으로 싱가포르 남성이나 네덜란드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HPV 지식은 13점 만점에 7.87점으로 미국 성인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 즉, 성경험을 매개로 자궁경부암이 발병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HPV란 사실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것이다(박수정 외, 2011). 특히, HPV가 남성들에게도 생식기 사마귀나 음경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감염경로, 치료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 외, 2011). 결국 남성들은 HPV에 감염될 확률이 높음에도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약성과 심각성이 낮은

수준으로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병사들의 HPV에 대한 지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관찰됐으나, 성별에 따라 상이한 정답률을 보였다(신현경 외, 2015).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HPV 감염 여부 검사는 중요하고(91.7%),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는(91.1%)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HPV가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킨다거나(61.3%), 남성의 HPV 감염증상(32.2%)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생활을 하는 누구나 HPV에 감염될 수 있고 HPV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만큼, 남성에 대한 HPV 교육이 이뤄져야하며 예방 행동 이행을 위한 설득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한편,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건강 심리학 분야에서는 ‘질병에 다양한 종류의 인식(illness percep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정 질병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원형(prototype)에 대한 인식은 질병 인식의 중요한 영역이다. Kahneman과 Tversky의(1972)의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을 건강 연구라는 맥락에 적용해보면 개인들은 질병을 앓는 사람에 대한 통상적 상(prototypical image)을 갖고 있으며, 통상적 상과 자신이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실제적인 확률 추론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발병률을 높게 평가하며, 반대의 경우 낮게 평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 Park과 Grow(2010)는 제약 광고를 통해 얻은

정보가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개개인의 원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병률 판단에 기여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원형적 이미지(prototypical image)가 질병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언론 보도가 HPV 감염 및 이를 매개로 한 질병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HPV 예방 백신’을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지칭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명칭은 ‘HPV가 여성들만 걸리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남성이 HPV라는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원형적 인식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지식 추구 행위와 대응 행동 의도까지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등에 있어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 간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격차를 줄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Shim, 2008). 남녀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임에도 지식과 태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HPV의 경우 이러한 연구 의제는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험성 정보, 효능감 정보 등 건강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성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사들에서 주로 제공되는지, 아니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확대할 위험성을 내포한 기사들에서 관찰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언론이 HPV에 관련한 지식과 행동에서의 사회 집단 간 차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검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 본 연구는 HPV 관련 보도에서 성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성차 해소 정보의 제공 여부와 건강 행동 관련 정보의 제공 여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통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7: HPV 관련 언론 보도는 HPV 관련 성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8: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HPV 관련 성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여부와 취약성(8a), 심각성(8b), 자아 효능감(8c), 반응 효능감(8d)의 제공 여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3.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ABC협회가 집계한 발행부수 지표에 따라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판매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분석매체로 선정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샘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치적 이념은 샘플 프로파일(sample profile)을 설명하는 기능을 할 뿐, 주된 변인으로 다루지지는 않았다.

분석 기간은 HPV 예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백신으로 지정된 첫

해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분석 대상은 HPV 관련 내용이 한 문단 이상 포함된 기사로 한정했으며, 분석단위는 개별 보도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 언론사의 공식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검색 키워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HPV 백신’, ‘HPV 예방 백신’을 사용했으며, 검색 시 중복되는 기사는 표본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종 수집된 표본 기사는 총 167개(조선일보 16개, 중앙일보 53개, 한겨레 24개, 경향신문 74개)였다.

## 2) 분석유목

EPPM, HBM 등의 건강 행동 예측 모델들로부터 취약성, 심각성,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등 네 변인 및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들을 연역적 방식으로 추출해내었고, HPV 지식 및 대응 행위에서의 남녀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에 기반 하여 ‘성차 해소 정보 제공 여부’라는 변인 및 세부 항목을 구성했다. 연구의 주요 변인들, 즉 ‘반응 효능감 관련 정보’, ‘취약성 관련 정보’ 등의 콘텐츠 요소들이 한 기사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개념들은 데이터의 입력과 분석 과정에서 이원 응답 항목(1 = 관련 정보 제공, 0 = 관련 정보 비 제공)을 가진 개별 변인으로 취급되었다.

### (1) 취약성

기사의 내용에서 HPV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다루는 경우 인지된 취약성으로 코딩했다. 구체적으로 유병률(예: 평생동안 HPV에 감염될 확률을 기술한 경우, 전체 구성원 중 감염된 인구의 퍼센트를 제시하는 경우 등), 감염 증진 요인(조기 성경험 여부, 무절제한 성생활, 출산 횟수, 음주나 흡연 유무, 성파트너 수 등), 감염 경로(피부 접촉, 성관계)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취약성으로 분류했다. 단, HPV 감염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이나 자궁경부암 발병률만 언급한 경우는 코딩 유목에서 제외했다.

### (2) 심각성

HPV 예방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HPV 감염 시 예상되는 신체적·심리적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 심각성으로 코딩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심각성은 자궁경부암이나 음경암, 곤지름(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특정 질병이 발병한다는 정보나 이로 인한 사망, 고통을 언급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심리적 심각성은 HPV 감염 여부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수직 감염, 심리적 피해, 낙인, 자존감 상실 등 사회·심리적 정보를 기술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 (3) 자아 효능감

HPV 예방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자아 효능감으로 코딩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접종 가능’, ‘언제든지 접종 가능’ 등 접종 행위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 (4) 반응 효능감

HPV 예방 백신 접종 의 효율성 및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 반응 효능감으로 코딩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이점(예: 백신 접종이 암 발병률을 낮춘다고 명시한 경우 등)과 심리적 이점(예: 수직감염 방지, 부모로서의 보람 및 자존감 상승, 원활한 사회활동 등)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 (5) 성차 해소 정보

HPV 감염 및 HPV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질병 경험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명시한 경우 '성차 해소 정보 존재'로, 없는 경우 '성차 해소 정보 부재'로 코딩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HPV 감염 및 질병 경험 가능성을 명시한 경우 '성차 해소 정보 존재'로 분류했으며, 여성에 대해서만 HPV 감염 및 질병 경험 가능성을 명시하는 경우 '성차 해소 정보 부재'로 분류하였다.

### 3) 신뢰도

본 연구의 코더로는 인천 소재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인이 선정되었다. 코딩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코딩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독립적으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은 표본의 약 15%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Cohen, 1960)의 카파 공식을 통해 측정하였

다. 신뢰도 값을 계산한 결과 취약성 .886, 심각성 .857, 신체적 심각성 .828, 정신적 심각성 .773, 자아 효능감 .643, 반응 효능감 .857, 성역학정보 .828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신뢰도가 관찰되었다.

### 4) 분석 방법

본 논문은 내용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특정 콘텐츠 요소의 제공 여부 및 빈도에 관한 문제들(연구문제 1, 2, 4, 5, 7)의 경우 빈도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두 콘텐츠 요소들의 제공 여부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문제들(연구문제 3, 6, 8)을 위해서는 교차 분석을 사용했다. 데이터가 카이제곱(chi-square)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했다.

카이제곱 검정으로 두 명목 변인 사이에 관찰되는 상호연관성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우선적으로 밝힌 후, 연관성의 구체적 패턴을 밝히기 위해 열 비율 분석(column proportions)과 표준화 잔차 분석(standardized residuals)을 실시했다. 전자는 교차 분석표에서의 특정 행과 열의 비율(예를 들어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중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비율(예를 들어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 중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교차 분석표 상에서 각 셀의 관측치와 기대치의 차이(residuals)가 통계적으

〈표 1〉 HPV 관련 기사 예시

변수	기사 내용
인지된 취약성	자궁경부암 검진 사각지대에 갇힌 20대 여성 자궁경부암은 성관계로 옮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된 이후 10년 정도 지나 발생한다...대한부인종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3분의 1(34%)이 HPV에 감염돼 있으며, 특히 성생활이 활발한 20대는 절반이 감염돼 있다... 조선일보 2013.08.27.
신체적 심각성	[건강한 가족] “자궁경부암 백신, 65개국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채택”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종류가 100가지를 넘는데, 이 가운데 암을 유발하는 주요 유형은 HPV 16·18형 두 가지다. 16형이 전체 자궁경부암의 50~60%를, 18형이 20~30%를 유발한다. 이 두 유형만 예방해도 자궁경부암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6.07.11.
심리적 심각성	술 마시면 자궁경부암 위험 커져 ... 20대 직장여성 주의를 박모(28·여)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HPV)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HPV는 130여 가지며 이중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군은 13개다. 박씨는 13개 중 하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그는 “검사 결과를 듣고 마음이 상송생송해서 술이 더 늘었다”고 했다. 박씨는 병원 말대로 안심해도 될지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중앙일보 2014.08.27.
지아 효능감	자궁경부암 백신 선택해 무료 접종...“부작용 사례 보고 없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이 먼저 공급됐고, 27일부터는 또 다른 자궁경부암 백신인 서바릭스도 공급돼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12살인 여성 청소년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이 두 가지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6개월 간격으로 2번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겨레 2016.06.23.
반응 효능감	[건강] “자궁경부암 백신 효능 20년 이상... 10대 소녀들 우선접종 권장” 자궁경부암 백신의 개발로 수백만, 수천만명을 자궁경부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됐다. 이를 작동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전략은 치료비 절감 등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경향신문 2009.06.11
성차 해소 정보	‘생식기사마귀’ 부끄럽다? 방치하면 암까지 부른답니다 감추고 싶은 질환이 있다. 성(性) 관련 질환이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의 확산이 문제다. 특히 성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취약계층이다. 요즘 물밑에서 증가하고 있는 생식기사마귀(콘지름·콘딜로마)가 대표적인 질환이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5.03.09.

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잔차를 표준화(standardize) 시킨 후 이 통계치가 ‘차이 없음’을 의미하는 값, 즉 0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는지 혹은 낮은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Field, 2013).

#### 4. 연구결과

##### 1) 취약성 정보와 심각성 정보

〈연구문제 1〉의 목적은 HPV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 즉 ‘인지된 취약성’에 관련된 정보가 한국

의 주요 신문사들의 HPV 관련 기사에서 어떠한 빈도로 다루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빈도 분석 결과 총 167편의 기사 중 98(58.7%)편의 기사에서 유병률, 감염 경로, 감염 증진 요인 등의 취약성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는 HPV 관련 기사에서 약 40% 정도가, 위험 인식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는 취약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표 2 참조).

〈연구문제 2〉의 목적은 HPV 감염이 초래할 피해, 즉 인지된 신체적(RQ 2-a), 정신적(RQ2-b) 심각성에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빈번히 제공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빈도 분석 결과 대다

〈표 2〉 각 변인들의 빈도표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부재	존재		부재	존재
취약성	부재	69 (41.3%)	심각성 <sup>1)</sup>	부재	23 (13.8%)
	존재	98 (58.7%)		존재	144 (86.2%)
자아 효능감	부재	158 (94.6%)	신체적 심각성	부재	23 (13.8%)
	존재	9 (5.4%)		존재	144 (86.2%)
반응 효능감	부재	55 (32.9%)	정신적 심각성	부재	151 (90.4%)
	존재	112 (67.1%)		존재	16 (6.9%)
성차 해소정보	부재	133 (79.6%)			
	존재	34 (20.4%)			

〈표 3〉 취약성 정보와 심각성 정보 제공의 연관성

변인	두 변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사의 수 (%)	$X^2$	$P$
취약성&신체적 심각성	95 (56.9%)	22.92	<.01
취약성&심리적 심각성	10 (6.0%)	0.11	<.10

수의 기사가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144$ , 86.2%). 또한 신체적 심각성( $n=144$ , 86.2%)에 비해 정신적 심각성( $n=16$ , 9.6%)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매우 드물었다(표 2 참조). 신체적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구체적인 질병 정보 등을 언급했고, 심리적 심각성 정보는 주로 심리적 피해, 자존감 상실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연구문제 3〉의 목적은 취약성과 심각성 정보의 제공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우선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X^2(1, 167)=22.92$ ,  $P<.01$ . 교차 분석을 통해 도출한 카이 제곱 값을 피어슨 상관계수로 변환시켜보면(Rosenthal, 1994)  $r=.37$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를 통해 취약성과 심각성 정보 제공 여부

사이의 상관관계의 크기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Cohen, 1992).

두 변인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행 비율 분석(column proportions)을 실시한 결과, 취약성 정보가 있는 기사( $n=98$ ) 중 약 96.9%( $n=95$ )의 기사에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반대로 취약성 정보가 없는 기사( $n=69$ ) 중 약 71.0%( $n=49$ )의 기사에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는 취약성 정보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신체적 심각성 정보 역시 제공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05$ ). 또한 취약성 정보가 제공될 경우(29.0%, 69건 중 20건) 보다 제공되지 않을 경우(3.1%, 98건 중 3건), 신체적 심각성 정보 또한 부재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05$ ).

어떠한 부류의 기사들이 이러한 상관관계에 기

1) 심각성이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신체적 심각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변인은 사실상 동일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후의 분석부터는 심각성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대신 '신체적 심각성'과 '심리적 심각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취약성 정보를 제공한 기사들의 경우, 신체적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의 개수가 기대치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다( $z=-2.9, P<.01$ ).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들의 경우,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부재한 기사의 개수가 기대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z=3.4, P<.01$ ). 다른 부류 기사들의 관찰 빈도수와 예상 빈도 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주로 이 두 그룹의 기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심각성의 경우와는 달리, 취약성 정보와 심리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X^2(1, 167)=.11, P>.10$ . 행 비율(column proportion)과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통해서도 기대 빈도와 관찰빈도의 차이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2) 자아 효능감 정보와 위험 정보의 연관성

〈연구문제 4〉와 〈연구문제 5〉의 목적은 온라인상의 언론보도가 HPV 바이러스 백신의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자주 제공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었다. 〈표 2〉가 보여주듯이, 빈도 분석 결과 바이러스 백신 투여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는 반응 효능감 정보는 다수의 기사( $n=112, 67.1%$ )에

서 제공되고 있었으며, 주로 언급되는 내용은 신체적 이점, 심리적 이점 등이었다. 반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행위를 암시하는 자아 효능감 정보는 전체 기사의 약 5%( $n=9$ )에서만 제공되었다.

〈연구문제 6〉은 위험 정보(취약성, 심각성)와 효능감 정보(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우선 〈표 4〉가 보여주듯이 자아 효능감 정보의 낮은 빈도로 인해 취약성과 자아 효능감, 심각성과 자아 효능감을 동시에 언급하는 기사는 각각 전체의 4.2%, 4.8%에 불과했다. 반응 효능감 정보의 경우, 취약성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전체 기사의 42.5%, 그리고 심각성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전체기사의 64.1%에 달했다. 이는 반응 효능감과 위험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자아 효능감과 위험 관련 정보가 같이 제공되는 경우보다 훨씬 빈번함을 뜻한다. 기술 통계 수준에서 관찰된 이러한 경향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4〉가 보여주듯이 효능감 정보와 위험 정보 제공의 연관성은 신체적 심각성과 반응 효능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X^2(1, 167)=24.81, P<.01$ . 관련 결과 값들을 활용해서 산출한 (Rosenthal, 1994)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는  $r=.38$ 로, 두 변인 사이에 중간 수준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Cohen, 1992).

신체적 심각성과 반응 효능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잔차 분석과 행 비율 분석을 실시했다.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제공된 기사( $n=144$ ) 중에서는 약 74.3%( $n=107$ )의 기사가 반응 효능감 관련

〈표 4〉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 제공 사이의 연관성

변인	두 변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사의 수 (%)	$X^2$	$P$
취약성&자아 효능감 <sup>2)</sup>	7 (4.2%)	3.11	>.10
취약성&반응 효능감	71 (42.5%)		<.10
신체적 심각성&자아 효능감 <sup>3)</sup>	8 (4.8%)	24.81	>.10
심리적 심각성&자아 효능감 <sup>4)</sup>	0 (0%)		>.10
신체적 심각성&반응 효능감	107 (64.1%)	.50	<.01
심리적심각성&반응 효능감	12 (7.2%)		>.10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체적 심각성 기사가 없는 기사( $n=23$ ) 중에서는 극소수(4.3%,  $n=5$ )만이 반응 효능감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신체적 심각성 기사가 있을 경우 반응 효능감 정보 제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05$ ). 마찬가지로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있는 기사의 경우보다(25.7%, 144건 중 30건) 없는 기사의 경우에(78.3%, 23건 중 18건) 반응 효능감 정보 역시 부재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05$ ).

이러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어떠한 부류의 기사들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부재한 기사의 경우 반응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의 수가 기대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z=3.8$ ,  $P<.01$ ), 반대로 반응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수는 기대치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z=-2.7$ ,  $P<.01$ ). 따라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와 반응 효능

감 기사 제공 사이의 연관성은 주로 이러한 두 부류의 기사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약성 관련 정보와 반응 효능감 관련 정보도 같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에 거의 근접했다.  $X^2(1, 167)=3.11$ ,  $P<.10$ . 잔차 분석과 행비율 분석의 결과 어떠한 의미 있는 경향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 3) 성차 해소 정보와 위험 정보, 효능감 정보의 연관성

〈연구문제 7〉은 HPV 인식에 관한 성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떠한 빈도로 제공되는지 밝히기 위해 제기되었다. 〈표 2〉가 보여 주듯이, 총 167건의 기사 중에 약 20.4%를 차지하는 34건의 기사에서 성별에 따른 HPV 감염률 명시, HPV로 인한 질병 유발 정보 등의 방식으로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했다.

〈연구문제 8〉은 HPV 성차 해소 정보의 제공 여부와 위험 정보, 효능감 정보의 제공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성차 해소 정보 제공과 취약성, 심각성,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등의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련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

2) 각 셀의 기대 빈도가 5 이상이어야 하는 카이 제곱의 기본 가정 이 위반되어 피셔의 정확도 검정 (Fisher's Exact Test) 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3)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4)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표 5) 성차 해소 정보와 건강 행동 유도 변인의 연관성

변인	두 변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사의 수 (%)	$X^2$	$P$
성차 해소 정보&취약성	30 (18.0%)	15.38	<.01
성차 해소 정보&심리적 심각성 <sup>6)</sup>	34 (20.4%)		<.01
성차 해소 정보&심리적 심각성 <sup>7)</sup>	7 (4.2%)		<.05
성차 해소 정보&자아 효능감 <sup>8)</sup>	2 (1.2%)		>.10
성차 해소 정보&반응 효능감	29 (17.4%)	6.42	<.01

선 자아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건강 행동 관련 변인들이 성차 해소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관계의 크기를 관련 통계 값들을 활용해 산출해보면 (Rosenthal, 1994) 성차 해소 정보 제공은 취약성 정보 제공과는 중간 규모의 상관관계를 ( $r=.30$ ), 그리고 반응 효능감 정보 제공과는 약한 관계를( $r=.20$ )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sup>5)</sup>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든 관계의 방향성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차 해소 정보를 전달하는 34건의 기사 중 88.2%( $n=30$ )의 기사가 취약성 정보를, 20.6%( $n=7$ )가 심리적 심각성 정보를, 85.3%( $n=29$ )가 반응 효능감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성차 정보 해소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133건의 기사는 이들보다 낮은 비율로 각종 건강 행동 유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취약성의 경우 51.1%( $n=68$ )의 기사에서, 심리적 심각성의 경우 6.8%( $n=9$ )의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반응 효능감의 경우 62.4%( $n=133$ )의 기사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성

차 해소 정보가 부재한 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더 빈번하게 취약성, 심리적 심각성, 반응 효능감 등 건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s<.05$ ). 반대로 취약성(11.8% vs. 48.9%), 심리적 심각성(6.8%vs.20.6%), 반응 효능감(62.4%vs.85.3%) 등 건강 행위 유도 메시지 요소들은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들과 비교했을 때 성차 해소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에서 더 빈번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ps<.10$ ).

이러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어떠한 부류의 기사들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수는 성차 해소 정보가 있는 경우에 기대 수준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초과했고 ( $z=2.2, P<.05$ ), 성차 해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대 빈도보다 낮았다( $z=-2.7, P<.01$ ). 다른 부류의 기사들에서 유의미한 격차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주로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 심각성을 제공하지 않는 기사의 빈도는

5) 각 셀의 기대 빈도가 5 이상이어야 하는 카이 제곱의 기본 가정 이 위배되어 카이 제곱 값을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피어슨 상관 계수로 변환을 할 수 없었다.

6)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7)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8)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성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대 빈도보다 낮게 나왔다( $\chi^2=2.2, P < .05$ ). 반대로 심리적 심각성 정보를 포함한 기사의 빈도는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대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chi^2=2.1, P < .05$ ). 이는 대체적으로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성차 해소 정보와 신체적·심리적 심각성 정보 사이의 관계들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반응 효능감의 경우, 기대 빈도수와 관측 빈도 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HPV 관련 언론 보도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메시지로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강 행동 이론을 토대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약성, 심각성(신체적 심각성, 심리적 심각성), 효능감(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HPV 관련 인식과 행동에서의 성차 해소 기여 정보 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된 정보가 각 기사에서 어떠한 빈도로 제공되며, 각 변인들 사이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취약성 정보를 내포한 기사의 비율은 58.7%로, 내포하지 않은 기사의 비율은 41.3%로 집계되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기사에서 위험 인식의 핵심 변인인 취약성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심각성 정보를 내포한 기사의 비율은 86.2%로, 심각성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

로 빈번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심각성이 다뤄지는 경우 신체적 심각성은 동일한 수준에서 관찰됐으며, 정신적 심각성이 내포된 기사는 6.9%에 그쳤다. 따라서 불안, 죄책감, 자존감 저하 등 HPV 감염의 심리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심각성 인식을 제고하는 전략도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HPV 관련 실증연구에서 보고 하였던 결과들의 경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HPV 관련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취약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은주 외, 2011). 이는 HPV의 감염 경로나 감염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비교적 적었던 만큼 취약성 관련 지식수준은 낮게 관찰되지만(신현경 외, 2015; 이은주 외, 2011; 박수정 외, 2012), HPV가 매개하는 자궁경부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신체적 심각성을 내포한 기사가 대다수를 이뤘던 만큼 심각성 관련 지식수준이 높게 관찰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심각성에 비해 심리적 심각성이 현저히 적게 다뤄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추후 심각성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동기를 활용하여 건강 행동을 자극하는 동시에 취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어슨 상관관계수로 변환하여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의 크기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열 비율 분석을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성 정보가 없을 경우 보다 있을 경우에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함께 내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 표준 잔차 분석을 통해 어떠한 부류의 기사가 상관관계에 기여하는지 알아본 결과,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각성 모두 제공하지 않는 기사가 통계적 연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됐다. 반면 취약성과 심리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취약성과 심각성 정보가 함께 제공될수록 건강 인식 및 예방 행위 의도가 증가한다는 건강 행동 관련 이론들의 일치된 견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Rosenstock, 1960; Rogers, 1975; Witte, 1992) 부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취약성 정보와 심리적 심각성 정보 사이에는 어떠한 통계적 연관성을 살펴볼 수 없었고, 빈도 또한 현저히 적게 다뤄지고 있었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 기사에서 취약성과 신체적 심각성, 심리적 심각성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자아 효능감이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5.4%로, 반응 효능감이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67.1%로 집계되며, 행동 변화를 위한 핵심 변수로 간주되는 ‘효능감’ 관련 정보가 위험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효능감의 결

정 요인임에도 행동 변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아 효능감의 정보가 매우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HPV 예방 백신 접종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믿음’ 등 자아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행동 전반에 걸쳐 자아 효능감이 증진됨을 고려했을 때(Bandura, 1986), HPV 관련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밖에도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 사이의 상관관계는 신체적 심각성과 반응 효능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건강 행동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의 상호작용을 적합하게 반영해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지하였듯 효능감이 높을 경우에만 위험 인식의 제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강 행위까지 유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ogers, 1975; Witte, 1992; Witte et al., 2000; Grasso et al., 2015). HPV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위험 인식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수영, 2011; 신미아, 2016). 또 위험 인식과 효능감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예방 교육이 HPV 검진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김혜원, 200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두 차원의 변인을 동시에 다루는 메시지를 개발, 제공한다면 공중의 건강 행동 의도 제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차 해소 정보를 포함한 기사의 비율은 20.4%로 나타나며, HPV 감염 및 HPV 감염을 매개로 한 질병이 여성에게서만 발생한다는 원형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언론 보도에서 재현되는 HPV 관련 ‘원형적 이미지(prototypical image)’는 주로 여성에게 방점을 찍었으며, 이 같은 경향성이 HPV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관심도, 지식, 예방 행동의 격차를 벌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HPV에 대한 국내 남성들의 지식은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관찰되었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구체적으로 남성들은 HPV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HPV의 감염 경로나 감염으로 인해 남성에게 특정 질병이 유발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따라서 HPV와 관련하여 왜곡된 원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HPV 감염률 및 질병과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차 해소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외에도 성차 해소 정보와 위험 정보, 효능감 정보의 관련성을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아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건강 행동 변인이 성차 해소 정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차 해소 정보와 취약성 정보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반응 효능감 정보와는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 모든 관계의 방향성은 대략적으로 일치하였으며, 성차 해소 정보가 포함된 기

사는 포함되지 않은 기사에 비해 건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성차 해소 정보는 신체적 심각성과 심리적 심각성 정보 제공과 연관성이 있었다. 이처럼 성차 해소 정보가 제공된 기사일수록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를 높은 수준에서 함께 활용한다는 사실은 공중의 건강 행동 의도를 높여줄 수 있는 변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차 해소 정보와 위험정보, 효능감 정보를 내포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이를 심도 있는 보도 기사를 통해 제공한다면 HPV 관련 건강 행동 의도를 촉진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성차 해소 정보를 더 빈번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HBM, EPPM 등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이론적 전통에서 건강 행동의 선행 변인으로 규정한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 분석을 시도하여, HPV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방식이 공중의 예방 및 대처 행동에 미칠 영향력을 논의할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내용 분석의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 취약성, 심각성, 효능감 등 분석의 대상이 된 메시지들이 실제 공중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건강 행동 이론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 효과의 확인 향후 설문조사, 실험 등의 연구 디자인을 통해 밝혀내야 할 영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한계는 소비자들이 HPV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다양할 것임에도 온라인상의 기사만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같은 정보 기술 산업 선진국의 시민들이 정보의 생산, 편집, 유통 등의 과정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향후 신문, 방송 등의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건강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적 형식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2007년 이전에 게재된 온·오프라인의 기사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흐름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병기, 이낙우, 김승철, 김영태, 김용만, 김찬주, 박상운, 송용상, 이재관, 이원철, 조남훈, 조치흠, 허수영, 박종섭, 이규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자궁경부암 정복추진 Task Force팀. (2007).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4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권고안.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18(4), 259-283.
- 김병기. (2015. 4. 28). 자궁경부암백신,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돼야. *의협신문*, URL: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8>
- 김혜원. (2009). 미혼 여대생에게 적용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연계 자궁경부암 예방교육의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4), 490-498.
- 김혜원. (2012).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낙인, 수치심과 검사의도의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217-225.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http://isis.kisa.or.kr/board/?pageId=060100&bbsId=7&itemId=818&searchKey=&searchTxt=&pageIndex=1>
- 박수정, 박효정. (2012). 자궁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대한 성인 남성의 지식 및 백신 접종 의향. *기본간호학회지*, 19(2), 201-211.
- 신미아. (2016).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유무에 따른 효능감, 건강신념 및 자궁경부암 지식의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359-367.
- 신현경, 박효정. (2015). 병사들의 자궁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대한 지식 및 백신 접종 의향. *기본간호학회지*, 22(2), 158-168.
- 이승연, 한미아, 박종, 류소연. (2015). 남녀 대학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 및 의도 관련 요인. *대한임상간증진학회지*, 15(3), 141-149.
- 이영은, 박정숙, 최은정. (2013). 여고생의 자궁경부암 지식,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및 접종실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7(1), 27-37.
- 이은주, 박정숙. (2011).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지식,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및 접종실태. *중앙간호학회지*, 11(1), 65-73.
- 이준엽. (2017. 2. 26).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률은 왜 저조할까? *대구신문*, URL: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19&mode=view&num=219042>
- 임상호. (2017. 2. 25). 만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하세요. *YTN*, URL: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50158485799](http://www.ytn.co.kr/_ln/0103_201702250158485799)
- 정의철, 진창현. (2011). 유방암·자궁경부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검진의도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2), 139-162.
- 조수영. (2011). 효과적인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캠페인을 위한 수용자 연구: 확장된 HBM 적용. *광고연구*, 91, 348-377.
- 최명일, 김경환, 주지혁. (2009). 행위단서로서 광우병 관련 미디어 노출이 미국산 쇠고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3(6), 50-65.
- Agosti, J. M., & Goldie, S. J. (2007). Introducing HPV vaccine in developing countri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6, 1908-1910.
- Anderson, J. O., Mullins, R. M., Siahpush, M., Spittal, M. J., & Wakefield, M. (2009). Mass media campaign improves cervical screening across all socio-economic groups. *Health Education Research*, 24(5), 867-87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5-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8). Health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theory. *Psychology and Health*, 13, 623-649.
- Brewer, N. T., Weinstein, N. D., Cuite, C. L., & Herrington, J. E. (2004). Risk Perceptions and their relation to risk behavior.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7(2), 125-130.
- Brotherton, J. M., Murray, S. L., Hall, M. A., Andrewartha, L. K., Banks, C. A., & Meijer, D.

- (2013).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Coverage among Female Australian Adolescents: Success of the School based Approach.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9(1), 614-617.
- Byrne, S., Niederdeppe, M., Avery, R. J., & Cantor, J. (2013). When diet and exercise are not enough: An examination of lifestyle change inefficacy claims in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Health Communication*, 28, 800-813.
- Cameron, K., Witte, K., Lapinski, M. K., & Nzyuko, S. (1999). Preventing AIDS along the Trans-African Highway in Kenya: Using persuasive message theory to conduct formative evaluation. *International Quarterly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18, 331-356.
- Carpenter, C. (201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health belief model variables in predicting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25(8), 661-669.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HPV vaccines for boys and girls. <https://www.cdc.gov/vaccines/parents/diseases/teen/hpv-indepth-color.pdf>
- Chapman, G. B., & Coups, E. J. (2006). Emotion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Worry, regret, and influenza vaccination. *Health Psychology*, 25(1), 82-90.
- Cohen, J. (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37-46.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rowell, T. L., & Emmers Sommer, T. M. (2000). Examining condom use efficacy, and coping in sexual situ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7, 191-202.
- Daley, E. M., Vamous, C. A., Buhi, E. R., Kolar, S. K., & McDermott, R. J. (2010). Influences on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statu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Women's Health*, 19(10), 1885-1991.
- Dillard, J. P. (1994). Rethinking the study of fear appeals: An emotional perspective. *Communication Theory*, 4, 295-323.
- Erinosho, T. O., Pinard, C. A., Nebeling, L. C., & Yaroch, A. L. (2015).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s food attitudes and behavior survey to assess correlates of fruit and vegetable intake in adults. *PloS One*, 10(2), e0115017.
- Field, A. (2013).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Glanz, K., Rimer, B. K., & Viswanath, K.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San Francisco, CA: A Wiley Imprint.
- Grasso, K. L., & Bell, R. A. (2015). Understanding health information seeking: A test of the risk perception attitude framework.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2), 1406-1414.
- Hanson, J. A., & Benedict, J. A. (2002). Use of the health belief model to examine older adults' food-handling behaviors. *Journal of Nutrition Behavior*, 34, 25-30.
- Harrison, J. A., Mullen, P. D., & Green, L. W. (1992). A meta-analysis of studies of the health belief model with adults. *Health Education Research*, 7(1), 107-116.
- Hochbaum, G. M. (1958). *Public Participation in Medical Screening Programs: A Socio-Psychological Study*.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 Institute of Health. (2004). *Health Literacy: A Prescription to End Confusion*. Washington: National Academic Press.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1(1), 1-47.
- Johnsen, J. A. K., Rosenvinge, J. H., & Gammon, D. (2002). Online group interaction and mental health: An analysis of three online discussion

- forum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3, 445-449.
- Jones, M., & Cook, R. (2008). Intent to receive an HPV vaccine among university men and women and implications for vaccine administration.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 23-32.
- Jung, T. J., & Brann, M. (2014). Analyzing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and health belief model constructs in texting while driving: news coverage in leading U.S. news media outlet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52(4), 210-221.
- Kahn, JA, Rosenthal, S. L., Hamann, T., & Bernstein, DI. (2003). Attitudes about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in young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TD&AIDS*, 14(5), 300-306.
- Kahneman, D., & Tversky, A. (1972). Subjective probability: A judgment of representativeness. *Cognitive Psychology*, 3(3), 430-454.
- Karen G., Barbara K. Rimer, & K. Viswanath.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NY: Wiley.
- 유태균 역. (2009). *건강행동과 건강교육*. 파주: 군자출판사.
- Lapinski, M. K. (2006). StarvingforPerfect.com: A Theoretically Based Content Analysis of Pro-Eating Disorder Web Sites. *Health Communication*, 20(3), 243-253.
- Lee, E. H., Um, T. H., Chi, H. S., Hong, Y. J., & Cha, Y. J. (2012). Prevalence and Distribution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in Korean Women as Determined by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Assa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7(9), 1091-1097.
- Lewis, I. M., Watson, B., & White, K. M. (2010). Response efficacy: the key to minimizing rejection and maximizing acceptance of emotion-based anti-speeding messag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2(2), 459-467.
- Maddux, J. E., & Rogers, R. W. (1983). Protection motivation and self efficacy: A revised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19, 469-479.
- Menon, G., Block, L. G., & Ramanathan, S. (2003). We're at as much risk as we are led to believe: Effects of message cues on judgments of health ris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8(4), 533-549.
- Morton, T. A., & Duck, J. M. (2001). Communication and health beliefs: mass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perceptions of risk to self and others. *Communication Research*, 28(5), 602-626.
- Park, J., & Grow, J. M. (2010). Symptom information in direct-to-consumer antidepressant advertising and consumer perception of the lifetime risk of depression. *Journal of Medical Marketing: Device, Diagnostic and Pharmaceutical Marketing*, 10(2), 123-133.
- Park, J., Ju, I., & Kim, K. (2014). Direct-to-consumer antidepressant advertising and consumers' optimistic bias about the future risk of depression: The moderating role of advertising skepticism. *Health Communication*, 29(6), 586-597.
- Parkin, D. M., Bray, F., Ferlay, J., & Pisani, P. (2002). Global cancer statistics.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55, 74-108.
- Pitts, M., Smith, A., Croy, S., Lyons, A., Ryall, R., Garland, S., Wong, M. L., & Hseon, T. E. (2009). Singaporean men's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human papillomavirus (HPV) and their attitudes towards HPV vaccination. *Vaccine*, 27(22), 2989-2993.
-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91(1), 93-114.
- Rosenstock, I. M., Strecher, V. J., & Becker, M. H. (199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HIV Risk Behavior Change*. New York: Plenum Press.



- Rosenthal, R. (1994). Parametric measures of effect size. In: Cooper H, Hedges LV, editors.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chroeder, R. (2007). We can do bette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American peopl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7*, 1221-1228.
- Shim, M. (2008). Connecting internet use with gaps in cancer knowledge. *Health Communication*, *23*(5), 448-461.
- Thrasher, J. F., Swayampakala, K., Borland, R., & Hardin, J. (2016). Influences of self-efficacy, response efficacy, and reactance on responses to cigarette health warnings: A longitudinal study of adult smokers in Australia and Canada. *Health Communication*, *31*(12), 1517-1526.
- Williams, C. (2003). New technologies in self-help: Another effective way to get better?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1*, 170-182.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 329-249.
- Witte, K., & Allen, M. (2000). A meta-analysis of fear appeals: Implications for effective public health campaigns. *Health Education & Behavior*, *27*(5), 591-615.
- Zhang, X., Kim, B., Pember, S., & Kim, B. (2017). Persuading Me to Eat Healthy: A Content Analysis of YouTube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Grounded in the Health Belief Model.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2*, 38-51.
- Zimmerman, R. S., & Vernberg, D. (1994). Models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 Comparison, critique, and meta-analysis. In G. Albrecht (Ed.), *Advances in Medical Behavior Models: A Reformulation* (pp. 45-67). Greenwich, CT: JAI Press.



# A Theory-Guided Content Analysis of the Newspaper Coverage of Human Papilloma Virus(HPV)

## •Min Hye Seo

M.A. Student, Dept. of Mass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Jin Seong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tent of Korean newspaper articles on Human Papilloma Virus (HPV) to evaluate their potential capability to enhance the public's adaptive behavior regarding the health issue. The content analysis focused on constructs drawn from theories in health behavior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58.7% of the sampled news articles contained information about the probability of contracting HPV (i.e., susceptibility information), whereas 86.2% communicated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contracting HPV (i.e., severity information). The two construc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such that articles with susceptibility information were likely to also convey severity information. Response efficacy (i.e., confidence in the positive outcomes of vaccination) information was embedded in 67.1% of the articles, while the rate was only 5.4% for self-efficacy (i.e., confidence in one's ability to get vaccination). The two constructs tended to appear simultaneously. Content elements capable of reducing the gender gap in the interest, knowledge, and behavior regarding HPV appeared in 20.4% of the sampl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especially in light of the role of mass media in facilitating adap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nges regarding HPV.

Keywords: Content Analysis, EPPM, HBM, Health Behavior, Human Papilloma Virus(HPV)

\*Corresponding author(jinspark@inu.ac.kr)